

Ephesians #5 - Masterpiece of Love

Bo Stern-Brady

July 7, 2024

에베소서 #5 - 사랑의 걸작 보 스텐-브레이디 2024년 7월 7일

For we are his workmanship, created in Christ Jesus for good works, which God prepared beforehand, that we should walk in them. Ephesians 2:10

"우리는 그의 하는 바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창작품으로 선한 일을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일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에베소서 2:10)

My dad loved his work. My first awareness of his work started with my mom, making his lunch every night. Cutting up carrot sticks. Putting tea in his thermos ("Why does dad drink tea when he works and coffee when he doesn't?" "That's just his way, Bo.") I remember her setting it on the counter because ain't no way she was getting up at 3:00 a.m. to place it in his hands and kiss him goodbye. Even with a 3:00 a.m. start time, my dad LOVED his work. I don't remember a single sad or frustrated statement about it while he was hauling logs. He. Loved. It. Sometimes I went with him and I remember watching the sun come up from my place riding shotgun with no seatbelt; a little girl in a really big truck with her dad, always wearing a plaid Pendleton shirt, who she thought was stronger than any of the trees that truck would carry. We would drive tiny, winding roads to get to remote sites where a big machine would lower a load of logs onto his truck and he would wrap them with chains to secure them. He would sometimes talk about where these logs would end up - maybe this truck was carrying the walls to someone's home or the roof that would protect them from the weather or a piece of furniture they would hand down to their kids and grandkids. My dad had a humble job, but understood the worthiness of his work. He knew what he was doing and why he was doing it. Bigger than that, he understood the JOY of it. I just heard him on a podcast, talking about those days of driving a truck at three in the morning and he said, "It was HEAVEN." My father loves his work. And now I understand because I love my work too. And from this vantage point, I can see that his work provided three distinct things: an income for us, something beautiful for someone else (the house, the furniture), and my dad's deep sense of identity and calling. My dad knew he was living out the very thing for which he was made.

아빠는 자신의 일을 사랑했습니다. 나에게 그의 일에 대한 첫 기억은 매일 밤 엄마가 저녁을 만들 때 시작되었습니다. 당근을 썰어서 가방에 넣고, 보온물통에 차를 담아 놓습니다 ("아빠가 일할 때 왜 차를 마시고, 일하지 않을 때 커피를 마시는 걸까요?"

"그냥 그의 방식이야, 보.") 엄마는 점심을 부엌 테이블에 준비해 놓았습니다. 왜냐면

엄나는 다음날 아빠가 출근하기전에 **3:00 a.m.**에 일어나서 그에게 잘 다녀오라는 인사를 할수는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3:00 a.m.**에 시작해도 아빠는 자신의 일을 사랑했습니다. 그가 재목을 실어 나를 때 한 번도 슬픈 말이나 좌절감을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가끔 나는 그와 함께 갔는데, 그 때 태양이 떠오르는 걸 보았습니다. 거너에 타고 있었던 어린 여자애. 그는 항상 펜들턴 셔츠를 입고, 아빠가 트럭이 운반할 나무보다 강하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작은, 구불구불한 도로를 달려서 외딴지역에 도착하고, 큰 기계가 나무를 그의 트럭에 내려놓고, 그는 그것들을 고정시키기 위해 사슬로 묶었습니다. 가끔 그는 이 나무들이 어디로 가게 될지에 대해 이야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트럭은 누군가의 집을 지을 벽을 운반하거나 날씨로부터 보호할 지붕이 될지, 또는 그들의 자녀와 손주들에게 내려갈 가구의 한 부분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빠는 평범한 직업을 가졌지만, 그의 일의 가치를 이해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고 왜 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가 그 일의 즐거움을 알고다는 것입니다. 방금 팟캐스트에서 아빠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침 **3시**에 트럭을 운전하던 그 때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는 "그것은 천국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일을 사랑했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이해합니다. 나 또한 나의 일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각에서, 나는 그의 일이 세 가지 명확한 것을 제공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수입을 제공했고, 다른 사람에게 아름다운 것을 제공했으며 (집, 가구), 그리고 아빠의 깊은 정체성과 사명감을 제공했습니다. 아빠는 자신이 왜 태어났는지에 대한 이유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Fast forward to Ephesians and here we see, a God who also goes to work.

에베소서로 빠르게 넘어가면, 여기 우리는 하나님이 또한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For we are his workmanship, created in Christ Jesus for good works, which God prepared beforehand, that we should walk in them. Ephesians 2:10

우리는 그의 산물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해 창조된바 되었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속에서 행하게 하려고 미리 정하신 것이라. (에베소서 **2:10**)

I know that verse makes it sound like God already did the work and now he's just in heaven kicking back, watching us mess up His creation, but nope - look at this one from **Philippians**: 그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미 일을 다 했고 이제는 그가 하늘에서 쉬면서 우리가 그의 창조물을 망가뜨리는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요 - 빌립보서에서 이 구절을 보세요.

Therefore, my beloved, as you have always obeyed, so now, not only as in my presence but much more in my absence, work out your own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 [13](#)for it is God who works in you, both to will and to work for his good pleasure. Phil 2:13 ESV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한 대로 내가 있는 때뿐만 아니라 지금은 내가 없는 때에도 너희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 두려움과 떨며 하라.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원하는 것도 행하게 하시는 이십니다.

God WORKS.

I have this picture of God, packing his lunch, putting on his plaid Pendleton shirt and going to work. And his work is....me. And his work is YOU. You are His workmanship. You are His construction site. Your family is His construction site. B4 is His construction site. He is AT work in us...and He *loves his job*. Chills.

The word “workmanship” in Ephesians is the word “poema”. - it’s a work of art. A masterpiece. Masterpieces take time. It says we are his workmanship - CREATED in Christ Jesus . That word created means ‘to shape or form...’.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도시의 도시장, 펜들턴 셔츠를 입고 일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의 일은 나입니다. 그리고 그의 일은 너입니다. 당신은 그의 작품입니다. 당신은 그의 공사장입니다. 당신의 가족 역시 그의 공사장입니다. **B4** 역시 그의 공사장입니다. 그는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 그는 그의 일을 사랑하십니다. 전율이 느껴집니다.

에베소서에서 ‘**workmanship**’이라는 말은 ‘**poema**’입니다. - 그것은 예술 작품입니다. 걸작입니다. 걸작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는 그의 걸작입니다 -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그 창조된 이란 말은 ‘형성하거나 형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Michelangelo’s Pieta. (PHOTO) Created before his 25th birthday...it took him a full year and he carved it from one block of perfect marble. It lives in the Vatican and you have to go to Italy to see it and you can’t touch it. One of a kind. Invaluable.

Here’s another one. It’s \$56 on Wayfair. (PHOTO). Mass produced in a factory.

We are not Wayfair chotchkes ...we are masterpieces. God has gone to work on us. He is working on us. He is shaping and forming us. And He is not forming us for the top of someone’s desk...he is forming us to DO work as well. He is working on us to “will and to work for his good pleasure.” We are not the products of an assembly line and we aren’t created to work on an assembly line.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사진). 25세 에 창조했습니다. 그는 한 년 동안 완벽한 대리석 한 덩어리에서 조각했습니다. 바티칸에 있으며 이탈리아에 가서 봐야하며 만질 수 없습니다. 독특하며 값비싼 작품입니다. 여기 또 다른 작품이 있습니다. **Wayfair**에서 **\$56**에 판매 중입니다. (사진)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었습니다.

우리는 **Wayfair**의 소품이 아닙니다 ... 우리는 걸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하러 가셨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형성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를 누군가의 책상 위에 놓기 위해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 그는 우리가 일을 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그의 기쁨을 위해 뜻하고 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립 라인의 제품이 아니며, 조립 라인에서 일하기 위해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We are HIS work, created FOR work. What kind of work? The same kind of work that He is doing in us. 우리는 그의 작품이며, 일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어떤 종류의 일일까요? 그가 우리 안에서 하고 있는 일과 같은 종류의 일입니다.

Follow God's example, therefore, as dearly loved children and walk in the way of love, just as Christ loved us and gave himself up for us as a fragrant offering and sacrifice to God. Ephesians 5:1-2 NIV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녀처럼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의 길로 걸으라.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드신 것 같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과 속죄제로 드리셨으니

Watch what God does, and then you do it, like children who learn proper behavior from their parents. Mostly what God does is love you. Keep company with him and learn a life of love. Observe how Christ loved us. His love was not cautious but extravagant. He didn't love in order to get something from us but to give everything of himself to us. Love like that. Ephesians 5:1-2. The Message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주의하고 그대로 행하라. 부모님에게서 바른 행동을 배우는 자녀처럼 하라. 하나님의 주된 일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하여 사랑의 삶을 배우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주의하여 보라. 그의 사랑은 신중하지 않고 낭비적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사랑하지 않으셨지만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기 위해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사랑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Ephesians 5:1-2, The Message**

What kind of work are we called to do in our world? The work of love. That could look lots of different ways, but from the greatest commandment to this verse in Ephesians to so many other statements in the Bible, it appears to me that anything done without love is done without God. Love is the signature on the work of God; it is the recipe; it is the through line of everything he does. Love.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라고 부르는 걸까요? 사랑의 일입니다. 이 일은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가장 큰 계명부터 에베소서에서 있는 이 구절까지 많은 성경 구절들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랑 없이 행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 없이 행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서명이자 레시피이며,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의 주요 테마입니다. 사랑입니다.

And when we talk about our work, the word LOVE is tricky. Do we LOVE what we do? Maybe not. **But can we do what we do WITH LOVE?** That's a better question. Is the thing that we're doing -whatever it is - contributing to the expansion of the knowledge of the love of God in our world? This is big because we are a world filled with consumers. People who take and use and abuse and hoard and destroy. The scarcity of love has been here for as long as we've been living east of Eden. Into this chaos of consumption God places His work of love to be CREATORS of love, givers of love. When we understand that we are the product of love, we realize that love inside of us is a renewable resource. It keeps growing as we keep giving. 우리가 우리의 일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랑'이라는 말은 애매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을 사랑합니까? 아마도 그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을 사랑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더 나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 - 무엇이든지 - 그것이 우리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지식을 확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가요?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소비자들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빼앗고 사용하고 낭비하고 저장하며 파괴하는 사람들이죠. 사랑의 부족은 우리가 에덴 동쪽에서 살아온 지 오래된 문제입니다. 이 소비의 혼란 속에서 하나님은 사랑의 작업을 우리에게 놓고, 사랑의 창조자이자 사랑의 주는 자로 만듭니다.

우리가 사랑의 산물임을 이해하면, 우리 안의 사랑이 재생 가능한 자원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주는 한 그 사랑은 계속 자라나게 됩니다.

The workmanship of God's hands is always about relationship. But sometimes the work of our hands moves us away from relationship. Examples. Transportation. Information. The creation has built systems that pull us away from our Creator and not closer to Him.

(We'll talk about this more as we move further into election season, because it's really important.)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진 작품은 항상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손의 작품이 관계에서 우리를 멀리 떨어뜨립니다. 예를 들어, 교통과 정보입니다. 인류는 창조물로서, 창조주에서 우리를 멀리 떨어뜨리는 시스템을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는 선거 시즌이 더 진행됨에 따라 이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In order to work the way God works, we have to partner our will with His will. There are a thousand reasons to Want to work OUR way instead of HIS way - so we have to be willing to ask the Holy Spirit to work in the soil of our soul desires and to orient them around the hope of our calling. 하나님은 작업하는 방식으로 작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를 그의 뜻과 파트너십을 맺어야 합니다. 그의 방법이 아닌 우리의 방식으로 작업하려는 수천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의 욕망의 토양에서 성령님께 우리를 작업하도록 요청하고, 그들을 우리의 부름의 희망을 중심으로 정렬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Therefore, my beloved, as you have always obeyed, not only in my presence but much more in my absence, work out your own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 for it is God who works in you, both to will and to work for his good pleasure. **Phil 2:12-13 ESV**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한 대로 나의 존재 때뿐만 아니라 내 부재 때에도 더욱 두려움과 떨며 너희 스스로의 구원을 이루어 내라.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원하는 대로 하여 그 좋은 기쁨을 위해 뜻과 일하는 이가 하나님이심이니라.

빌립보서 2:12-13 ESV

It's always a little sobering to me when Paul uses work and salvation in the same sentence. But that's exactly what he does here. He says, salvation is a free gift from God - and it's up to us to partner with Him to learn how to work that gift into the fabric of our lives...to learn how to walk it, talk it, breathe it, live it in our world. The workmanship learning to do the work for which they are intended. For which they've been created. Back to Michelangelo's sculpture. What is the work of the sculpture? Mostly, it's to reflect the skill and grace and work ethic of the artist. The Pieta stands as a reflection of Jesus and Mary, yes, but I mostly don't look at it and think about Jesus - I look at it and think about the craftsman. That his hands made it, and perfected it. Our lives are like

that. The work we do is the **work of witness**. We bear witness to the grace and goodness of Jesus. To his hope and healing. Healed lives bear witness to a healing God. Liberated lives, bear witness to a God who sets us wildly free. Flourishing lives, bear witness to a God who is a beautiful Gardner who is cultivating beautiful fruit in us that will be seen through us. We are His workmanship, created for good works...for the work of love that leads people to the King of Love.

풀이 일과 구원을 같은 문장에 사용할 때 항상 좀 심각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문장에서 정확히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무료 선물이에요 - 우리는 그 선물을 우리 삶의 실천으로 어우러지게 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그와 협력해야 해요... 그 선물을 어떻게 삶 속에서 견고, 말하고, 숨 쉬고, 살아가는지를 배우는 법을 말이죠. 그 일을 배우며, 그들이 의도된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을 배우는 법을 말이죠. 그들이 창조된 목적을 위한 그 일을 말이죠.

다시 미켈란젤로의 조각으로 돌아가보죠. 조각가의 작업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은 예술가의 기술과 은혜 그리고 노동 윤리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피에타는 예수 그리고 마리아의 반영물로 남아 있지만, 저는 주로 그것을 보고 예수를 생각하지 않고, 조각가를 생각해요. 그의 손이 그것을 만들었고, 완성했다는 생각을 하죠. 우리의 삶도 그와 비슷해요. 우리가 하는 일은 증인의 일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와 선의를 증언해요. 그의 소망과 치유를 증언해요. 치유받은 삶은 치유하는 하나님의 증언이 되죠. 해방받은 삶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증언이 되죠. 번영하는 삶은 아름다운 과일을 우리 안에서 조성해 내는 아름다운 정원사 하나님의 증언이 되죠. 우리는 그의 작품이에요. 선한 일을 위해 창조된 것이죠... 사랑의 일을 통해 사람들을 사랑의 왕궁으로 이끄는 일을 위해요.

Paul says in that passage, it is God who works in us both to WILL and to DO. Will and do. This is great news! If we give Him access, God can work in the want-to of our hearts. He can motivate our heart toward the good work of love so we become creators and not just consumers.

Sometimes people talk to me about the conflict they feel in loving people with whom they disagree. Won't that seem like approving of their actions? Let's revisit this verse:

성경 구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원하는 대로 할 것도 할 것도 모두 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고 할 것입니다. 이는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입장을 허락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원하는 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

마음을 사랑의 선한 일로 동기부여하여 우리가 창조자가 되고 소비자가 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가끔 사람들은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 느끼는 갈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그들의 행동을 승인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이 성경 구절을 다시 살펴보죠:

Observe how Christ loved us. His love was not cautious but extravagant. He didn't love in order to get something from us but to give everything of himself to us. Love like that. Ephesians 5:1-2. The Message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보세요. 그의 사랑은 신중하지 않고 낭비적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사랑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기 위해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사랑을 하세요." - 에베소서 5:1-2

At what point did Jesus start loving you? When you were fixed and free and flourishing? Or while you were broken and sad and sinful? While we were yet sinners, Christ died for us - He invested His whole life in loving us. Love like that. Be a witness to that kind of love. Set boundaries when you need to, but never stop loving and never stop believing that God can do his best work inside the least likely. Know how we know that for sure? "예수님이 언제부터 당신을 사랑하기 시작하셨나요? 당신이 완전하고 자유롭고 번영할 때인가요? 아니면 당신이 부서지고 슬프고 최악한 때인가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 그는 우리를 사랑하는 데 자신의 모든 삶을 투자하셨습니다. 그런 사랑을 하세요. 그런 사랑의 증인이 되세요. 필요하다면 경계를 설정하세요, 하지만 사랑을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장 불확실한 사람 안에서도 최선의 일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사랑하기를 멈추지 마세요. 어떻게 확실히 알 수 있을까요?"

All the words we read this morning on the big screen were written by Paul. A man so opposed to the will of God, that he had a front row seat to the stoning of Stephen. In the early church community, Paul would've been voted least likely to be invited to join a small group. And WHILE he was working to destroy God's workmanship; God met Him. Loved him. Restored him to life. And it's from that place that He pens one of my favorite verses: "오늘 아침 우리가 읽은 모든 말들은 바울이 쓴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 스티븐의 돌직구를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초기 교회 공동체에서 바울은 가장 마지막으로 초대받을 가능성이 큰 사람으로 투표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작품을 파괴하려고 노력하던 동안, 하나님은 그를 만나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그를 생명으로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 하나를 쓰게 되었습니다."

For this reason I bow my knees before the Father, 15 from whom every family[c] in heaven and on earth is named, 16 that according to the riches of his glory he may grant you to be strengthened with power through his Spirit in your inner being, 17 so that Christ may dwell in your hearts through faith—that you, being rooted and grounded in love, 18 may have strength to comprehend with all the saints what is the breadth and length and height and depth, 19 and to know the love of Christ that surpasses knowledge, that you may be filled with all the fullness of God. Ephesians 3:15-19

"이러한 이유로 나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가족의 이름을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분께서 자기 영광의 부요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능으로 힘을 받아 너희 속마음에 강화되어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에 계시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 내리고 터를 굳게 다지게 하려 함이니 이는 모든 성도와 함께 모든 것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하려 함이요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넘어 지식에 뛰어넘는 그 사랑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가득히 받게 하려 함이니라." - 에베소서 **3:15-19**

The work we do is the work of witness. It cannot be done without love. Do you need a love infusion in your work today? Believe me when I say: You are already a masterpiece. You are His workmanship - and he has hardwired His love into your heart.

우리가 하는 일은 증인의 일입니다. 사랑 없이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당신의 일에 사랑의 주입이 필요하신가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미 당신은 걸작입니다. 당신은 그의 작품이며, 그는 자신의 사랑을 당신의 마음에 담아 두셨습니다.